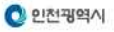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2월 10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시민정책 담당관실	담당자	시민참여지원팀장 박혜영 ☎440-2416 • 담당자 조영희 ☎440-2418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청원#36>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인천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2구간 동시 착공에 최선!
-2030년 동시 개통 위해 주민, 환경단체 등과 다각적 검토-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2구간 동시 착공’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 김기문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영상답변을 통해 “인천시는 2030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구간 건설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총 길이 260.8km 도로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1구간(시화~남송도IC, 8.4km)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3년 착공 예정이나 ▲2구간(남송도IC~인천남항, 11.4km)은 습지와 소음 등 문제로 단계별 추진이 검토되면서 청원이 이어졌다.

○ 이와 관련하여 김 조정관은 “국토교통부에 1, 2구간 동시 착공을 건의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사업지역인 연수구와 주민단체도 동시착공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2구간 건설 시 발생하는 습지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체 습지를 추가 조성하는 등 환경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과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 이어 청원에서 우려한 1구간 우선 개통 시 남송도IC 이용 화물차량 증가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에 대해 “1구간 설계 시 지하차도인 인천 신항대로를 주도로로 삼아通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답변원고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답변 원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입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축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도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2구간 동시착공' 청원에 공감해주신
3,583명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시민 시장님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1·2구간 동시착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
분리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가며
전 구간 동시 착공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 또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사업지역인 연수구와 주민단체도 동시착공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덕분에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1·2구간 동시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이며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구간 건설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습지보호구역 추가 지정·확대 등 습지 기능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 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남송도IC 이용 화물차량들이 늘어
안전과 교통 혼잡 등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구간 설계 시
지하차도인 인천 신항대로를 주도로로 삼아通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인천 신항의 시급한 교통량 처리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1구간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노선 일부가 주택과 인접해 있어 소음, 먼지 등
주거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2030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염려하시는 부분 모두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가겠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크나큰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